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즌5 제3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 비교 우위론과 신무역론에 따른 무역 발생

## 지문 평가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무역 이론들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기존 이론과 새로 등장한 이론을 각각 이해하면서도 양쪽을 비교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교 우위론에서는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두 국가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이 설명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 사회 - 경제학 - 무역 이론

- (가) 무역, 애덤 스미스, 절대 우위, 생산 요소, 리카도, 비교 우위, 기회비용, 노동 생산성, 교환 비율, 자본, 헤크셔러
- (나) 비교 우위론, 비교 열위, 폴 크루그먼, 신무역론, 내부 규모의 경제, 고정 비용, 외부 규모의 경제, 노동자 풀링 현상, 중간 투입물, 잠금 효과

## 가) 문단 1 절대 우위에 의한 무역 발생

- 1) **무역**이 발생하려면 두 국가 모두 교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애덤 스미스**는 무역이 절대 우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 ▶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교역을 할 이유가 없다. 이때 '절대 우위'는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이겠다.
- 2) **절대 우위**란 더 적은 **생산 요소**로, 즉 낮은 생산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를 말한다. 두 국가가 각각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생산하여 교역하면 상품들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서 두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된다.
  - ▶ A국이 바나나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어서 B국에 바나나를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A국은 B국보다 바나나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B국의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바나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즉 바나나의 교역은 B국에 이익이 된다.
  - ▶ 반면 B국은 사과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어서 A국에 사과를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사과의 교역은 A국에 이익이 된다. 즉 각각 상대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된다.

**<절대 우위>**  
낮은 생산 비용[→ 적은 생산 요소]으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

- 3) 그런데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 우위에 있어도 무역이 발생한다. **리카도**는 그 이유를 **비교 우위**로 설명한다.
  - ▶ 반면 A국이 B국에 대해 전부 절대 우위에 있다면, A는 무역을 할 이유가 없다. B국으로부터 상품을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B국도 무역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자국 산업이 몰락하고 수입으로만 연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현대 그럼에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단다[→ A국과 B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단다]. 그 비결은 '비교 우위'에 있는데……

## 가) 문단 2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 1)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를 말한다.
    - ▶ 절대 우위에서는 '생산 비용'이 낮아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비교 우위에서는 '기회비용'이 낮아서 이익이 발생한다.
- <비교 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얻는 우위
- 2) **기회비용**이란 생산 요소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한 상품의 생산이 다른 상품의 생산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상품의 생산 비용을 그것 때문에 포기한 상품의 가격이나 개수로 계산한 것이다.
    - ▶ 공장에 노동자가 100명이 있다고 해 보자. 상품 X를 생산하는 데에 70명이 투입되었다면 상품 Y에는 30명밖에 투입될 수 없다. 즉 X의 생산 비용은 '노동자 70명에 대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X를 생산하느라 투입되지 못한 노동자 70명이 같은 시간 동안 생산했을 Y의 가격이나 개수'이기도 한 거다.

**<기회비용>**  
어떤 상품의 생산비용 =  
그것 때문에 포기한 상품의 가격 또는 개수

- ▶ **주목** 결국 '기회비용'이란 문단1-2)의 생산 비용을 재해석한 것이겠다.
- 3) A국과 B국에서는 신발과 의류만 생산하며, 생산 요소가 노동뿐이고 하루에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 ▶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다.
  - 4) 각 상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 투입량이 A국은 신발이 2, 의류가 1, B국은 신발이 6, 의류가 2이다. 두 상품 모두 **노동 생산성**이 뛰어난 A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 ▶ **맥락 짚기**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예시다. 어디까지나 우리 목표는 왜 무역이 성립하는지, 즉 왜 A국과 B국 모두에 이익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데에 있음을 잊지 말자.
    - ▶ A국이 B국과 비교해 신발과 의류 둘 다 더 적은 노동이 투입된다. 즉 '생산 비용'이 더 낮다. 따라서 A국이 신발과 의류 둘 다 B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
- 신발과 의류 모두 절대 우위에 있는 A국**

노동 투입량	A국	B국
신발(1켤레)	2	6
의류(1벌)	1	2
- 5) 그런데 A국에서는 신발 1켤레의 생산을 위해 의류 2벌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신발 1켤레에 대한 기회비용이 의류 2벌이고, 마찬가지로 의류 1벌에 대한 기회비용이 신발 1/2켤레이다. B국에서는 신발 1켤레에 대한 기회비용이 의류 3벌이고, 의류 1벌에 대한 기회비용이 신발 1/3켤레이다.
    - ▶ A국과 B국의 생산 비용을 기회비용에 따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4)에서는 분명 A국이 전부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발에 대해서 B국이 우위에 있다.

A국과 B국 모두 이익을 얻는 교역		
기회비용	A국	B국
신발(1켤레)	의류 2벌	의류 3벌
의류(1벌)	신발 1/2켤레	신발 1/3켤레

6)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신발은 A국이, 의류는 B국이 특화하여 생산한 후 교역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여기까지 오면 논리는 문단-2)의 절대 우위와 다르지 않다. A국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발을 생산하여 B국에 수출하고, B국은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게 된다.

❗ **주목** 이렇게 각각 상대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된다. 따라서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7) 다만 신발과 의류의 **교환 비율**이 A국에서는 1:2이며 B국에서는 1:3이므로, 무역을 통한 교환 비율을 1:2와 1:3 사이에서 결정해야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어떤 논리로 무역이 성립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다. A국은 신발 1켤레 생산함으로써 '의류 2벌'만큼을 포기한 셈이다. 그런데 B국에서 그 대가로 '의류 2벌'보다 적은 값을 지불한다면? A국은 무역에 응할 이유가 없다.

▶ 반대로 A국이 신발 1켤레의 대가로 B국에 '의류 3벌' 이상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A국의 신발을 사느니 B국이 직접 생산하는 편이 더 싸겠다[→ B국도 의류 3벌을 포기하면 신발 1켤레를 생산할 수 있으니 말이다]. 즉 B국은 무역에 응할 이유가 없다.

### (가)문단 3 자본을 고려한 헤크셔의 이론

1) 리카도는 국가별 교환 비율의 차이가 기술 수준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리카도는 노동만 고려할 뿐 천연자원이나 설비 등 또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을 고려하지 않았다.

▶ 리카도는 생산 요소가 노동뿐이라는 가정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했다. 현실에서 생산 비용을 계산하는 데는 노동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들[→ 자본, 토지 등]도 반드시 포함된다. 이 지점이 리카도의 한계였다.

2) **헤크셔**는 이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 자본의 차이도 교환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떤 국가는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하고, 다른 국가는 노동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다.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농업이나 섬유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동차나 중공업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헤크셔에 따르면 자본, 노동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 우위론이 성립하기도 한다.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 (나)문단 1 폴 크루그먼의 신무역론

1) **비교 우위론**은 비교 우위의 산업에 속한 상품이 수출되고 **비교 열위**의 산업에 속한 상품이 수입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각종 스마트폰들이 교역되는 작금의 현실처럼, 같은 산업에 속하면서도 차별화된 상품들 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 '비교 우위의 산업'은 결국 기회비용이 낮은 산업, '비교 열위의 산업'은 기회비용이 높은 산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즉 비교 우위론으로는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을 설명할 수 있다.

▶ 그러나 비교 우위론으로는 동일한 산업 안에서의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다.

2) **폴 크루그먼**은 비교 우위론에서 벗어나 **신무역론**을 정립하며, 하나의 개별 기업에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내부 규모의 경제**로, 무역의 발생 이유는 물론 동종 상품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 (가)의 비교 우위론을 이해하려면 '기회비용'이 원지를 파악해야 했듯이 이번에는 '내부 규모의 경제'가 원지를 파악해야겠다.

**<내부 규모의 경제>**  
 하나의 개별 기업에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 감소

▶ 즉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평균 생산 비용은 감소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 (나)문단 2 내부 규모의 경제

1) 생산량에 따라 생산 비용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비교 우위론의 가정과 달리, ……

▶ 생산량에 따라 생산 비용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면 평균 생산 비용도 변할 이유가 없다. 1개를 생산할 때의 생산 비용이 10원이고 2개를 생산할 때의 생산 비용이 20원이라면, 평균 생산 비용은 두 경우 모두 10원이다.

2) …… 현실에서는 공장이나 설비 마련 등 초기에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는 수요가 많아져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누군가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생산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단 하나의 스마트폰을 만들더라도 공장도 지어야 하는 등 온갖 고정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비용이 10,000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스마트폰 1대의 생산 비용은 1원이라고 하자.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생산량	1대	10대	...	999대	1,000대
평균 생산 비용	10001/1 10,001원	10010/10 1,001원	...	10999/999 11.01원	11000/1000 11원

▶ 즉,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큰 규모의 고정 비용이 더 큰 값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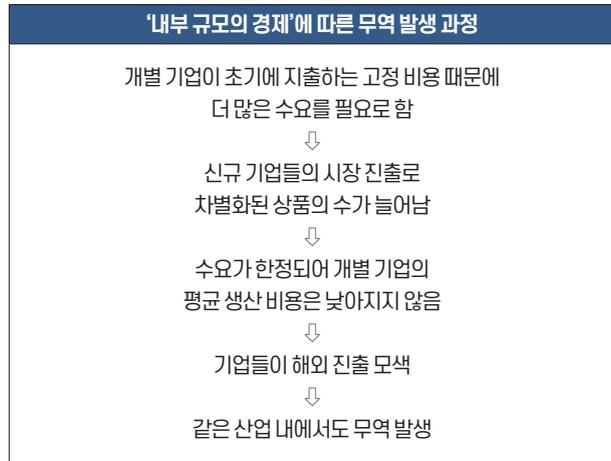
❗ **주목** 즉 생산량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만 평균 생산 비용이 더 낮아짐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여 차별화된 상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이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개별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은 그리 낮아지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상품들 중에서 선택할 뿐이어서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물론 무작정 많이 생산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생산한 만큼 팔 수 있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4) 크루그먼은 그나마 내부 규모의 경제가 주는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수요가 많은 해외로의 진출을 모색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도 무역이 발생하며 그 결과 세계의 소비자들이 상품 다양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이제 알겠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를 누리기 위해 → 궁극적으로는 내부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같은 산업 내에서도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다.



**(L)문단 3 외부 규모의 경제**

1) 한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자유로운 상황임에도 오늘날 특정 산업의 생산과 수출이 몇몇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는 외부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다.

▶ **백락 짚기** '내부 규모의 경제'와 어느 점에서 같고, 또 어느 점에서 다른 지 파악하는 데에 주력해야겠다.

2) 크루그먼에 따르면 **외부 규모의 경제**는 고정 비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

▶ 이견 차이점이다. '내부 규모의 경제'는 고정 비용에 기인했다.

3) .....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에,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노동자 풀링 현상**, 부품 공동 구매와 같은 **중간 투입물**의 공유, 노하우 전파와 같은 기술적 파급 효과 등 **외부적 이점**들을 얻음으로 인해 해당 산업 전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같은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생기는 이점들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이점들 덕분에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평균 생산 비용을 산업 전체 차원에서 낮출 수 있다는 거다.

**<외부 규모의 경제>**  
해당 산업 전체에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의 평균 생산 비용 감소

▶ 정리하자. 어떤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점차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내부 규모의 경제]. 이러한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는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부 규모의 경제와는 별개로] 다 함께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외부 규모의 경제].

내부 규모의 경제	외부 규모의 경제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 비용에 기인 ○</li> <li>•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 성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 비용에 기인 ×</li> <li>• 하나의 산업을 이루는 여러 기업들 차원에서 성립</li> </ul>

4) 그 결과 특정 산업의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잠금 효과**가 나타나며, 해당 국가는 생산성을 높이는 학습 효과까지 얻어 점차 더 강한 잠금 효과를 얻는다.

▶ '외부 규모의 경제'에 의해 '잠금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잠금 효과는 더욱 강해진다. 즉 특정 산업의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상태가 점점 강화되는 셈이다. 아무래도 한번 성립한 '외부 규모의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L)문단 4 외부 규모의 경제의 문제점**

1)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무역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2) 실제 중국이 특정 산업의 수출을 오랜 시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보다 낮은 인건비로 잠재적으로는 평균 생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점에서 생산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 중국이 특정 산업에 대해 '외부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겠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속한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평균 생산 비용이 매우 낮게 유지될 것이다. 해당 산업에서의 수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 그만큼 생산량이 어마어마할 거다].

▶ 편의를 위해 해당 산업에서의 전 세계에서의 수요가 100개인데, 그중 90개를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베트남이 만약에 '외부 규모의 경제'를 누림에 따라 중국처럼 90개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만큼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중국보다 더 낮게 말이다.

▶ 하지만 베트남은 남은 수요에 해당하는 고작 10개 정도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없다. 베트남의 기업들은 '내부 규모의 경제'도 못 누리고 '외부 규모의 경제'도 충분히 못 누린다는 거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베트남의 평균 생산 비용이 중국의 평균 생산 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내부 규모의 경제'든 '외부 규모의 경제'든 일단 생산량이 많아져야 가능한 거다.

▶ **주목** 중국의 '외부 규모의 경제' 덕분에 우리가 해당 상품을 비교적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미 생성된 중국의 '외부 규모의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상품을 베트남으로부터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셈이다.

3)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의 국내 시장에서 해당 산업으로의 시장 진출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처럼 외부 규모의 경제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국가에만 이익을 안겨 주는 측면이 있다.

▶ 무역이 존재하여 중국이 매우 싼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은 아예 해당 산업으로 진출하지 못한다. 만일 무역이 없었다면 베트남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베트남 국내에서부터 나타났을 것이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이 동시에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했다면 베트남이 시장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 외부 규모의 경제가 낳는 문제점은 평균 생산 비용이 최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무관하게 시장에 시간적으로 먼저 진출한 국가(혹은 기업)에만 이익을 안겨 준다는 데에 있다.

# 색면 추상 회화

### 지문 평가

감정의 세계를 회화에 담으려는 시도로써 '색면 추상 회화'를 소개하는 지문이다. 글이 어렵지 않으며,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다면 더 수월했을 테다. '색면 추상 회화'가 '표현주의 회화'와 '순수 추상 회화'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 내도록 하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 예술 - 회화 - 색면 추상 회화

표현주의 회화, 색면 추상 회화, 서양의 전통 회화, 순수 추상 회화, 색면, 로스코, '빨강 위의 황토, 빨강', 미적 정서, 송고, 구상 회화

### 문단 1 색면 추상 회화의 등장 배경

1) 20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사실적 묘사에서 벗어나 화가의 감정을 화폭에 담고자 하는 **표현주의 회화**가 유행하였다. 암울한 시대 현실을 반영하듯, 당시 표현주의 작품에는 일그러진 얼굴이나 어두운 표정의 인물이 자리하곤 하였다.

- ▶ 표현주의 회화는 화가의 감정을 화폭에 표현하고자 했던 양식이다. 20세기 초반 유럽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시대가 암울하다 보니 화가의 감정도 암울했을 것이다.
- ▶ 다음의 그림은 표현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에드바르 뭉크, 「절규」>

2) 그런데 내면에 부유하거나 깊이 침전되어 있는 감정의 세계를 한정된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 ▶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감정'을 몇몇 구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형상 없는 재현'이 필요할 텐데.....

3)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20세기 중반 미국의 화가들은 형태에서 벗어나 색 자체를 감정의 표현 수단으로 삼는 **색면 추상 회화**를 시도하였다.

- ▶ 표현주의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된 '색면 추상 회화'는 형태에서 벗어나 색만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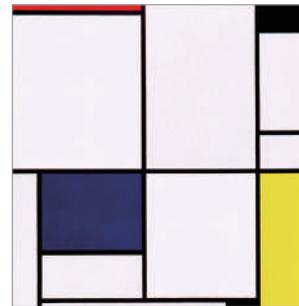
### 문단 2 색면 추상 회화의 화법

1) **서양의 전통 회화**에서 색은 주로 사물 묘사의 과정에서 구체적 형상 안에 채워지는 용도로만 활용되어 왔다.

- ▶ 형상과 색에 대한 전통적인 활용 방법이다. 즉 이때의 '색'은 여전히 형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 ▶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를 생각해 보자. 꽃을 그린다고 한다면, 우선 연필로 꽃의 형태를 그린 다음 그 안에 색을 칠해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이처럼 전통 회화에서는 색을 형상에 채우는 용도로만 쓴다.

2) 사물 대신에 오로지 색과 선만을 표현 요소로 삼는 **순수 추상 회화**가 등장하면서 색이 중요한 표현 요소로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선과 색의 기하학적 구성이라는 형태적 측면에 얽매어 주제를 담지 못하고 정신세계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 새로 등장한 순수 추상 회화는 구체적 형상의 사물을 없애고 색과 선만을 활용한다. 그러나 선과 선의 만남에 의해 기하학적 형태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순수 추상 회화를 대표하는 다음의 작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피터 몬드리안, 「타블로 I」>

- ▶ **주목** 이러한 방식은 결국에는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형태적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상대적으론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3) 그래서 색면 추상 화가들은 색을 칠하여 생긴 넓은 면인 **색면**에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무언가 감정의 동요를 느끼곤 하는 것처럼, 색채 자체가 신경을 자극하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송고, 운명, 비극[→ 감정의 세계]과 같은 주제를 색면만으로 표현하여 감정이 우리나라에게 하였다.

- ▶ 눈앞에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걸 계속 쳐다본다면 분명 내면에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색면 추상 화가들은 이러한 색의 힘에 주목해 색면만으로 감정의 세계를 표현했다.
- ▶ 이러한 색면에는 윤곽선이 없다. 따라서 형상은 물론 그 어떤 형태적 요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에도 최적이었다.

4) 그들은 외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각적 효과가 강화되도록 캔버스의 크기를 키웠을 뿐 아니라 색에만 주목할 수 있도록 형상이나 상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의 색면을 동일한 명도[→ 밝기의 정도]로 그린 이유이다. 다만 각기 다른 색면의 넓이를 조정하여 단순한 색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응집력 있는 회화**가 되도록 하였다.

- ▶ 색면 추상의 핵심은 감상자로 하여금 오로지 색에만 주목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 이외의 요소**[→ 형상, 상징적 요소]에 대한 영향은 전부 제거하려 한 것이다.

### 문단 3 로스코의 색면 추상 화법

1) 색면 추상 화가인 **로스코**는 색면이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얇은 물감을 여러 번 겹쳐 칠해서 깊이 착색되지 않고 색이 표면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가볍고 빠른 붓질로 색이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이도록** 하였다.

① **맥락 짚기**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표현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작품을 머릿속에서 재현해 보면서 어떻게 감상될지를 떠올려 보는 게 더 중요하다.

2) 그의 「**빨강 위의 황토, 빨강**」은 화폭의 둘레를 빨강색 칠하고 넓은 황토 색면과 좁은 빨간 색면을 위아래로 배치한 그림이다. 로스코는 서로 다른 색이 접하는 부분을 경계가 불분명하게 붓질하여 색들이 번지면서 확장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 색면의 배치는 다음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봤다.



3) 큰 캔버스를 적정 거리에서 감상할 때 색면의 살아 움직임[→ 가법과 빠른 붓질의 효과]과 색 경계가 무한히 사라져 가는 모습[→ 다른 색이 접하는 부분을 경계가 불분명하게 붓질한 효과]을 경험하게 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것에 대해 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스코는 단순한 물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향하는 출구로서 색채가 작용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 결국 로스코는 색채를 통해 어떤 감정을 향할 수 있기를 원했다. 「빨간색」을 물리적으로 '아 빨간색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다.

**문단 4 '무한한 것에 대한 관조'와 숭고**

1) '무한한 것에 대한 관조'는 서양 미술의 관습에서 볼 때 '숭고'의 감정에 해당한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정서**와 달리, **숭고**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을 압도하는 것에서 오는 경외감이다. 초인간적인 것 앞에서 인간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초월적인 것을 깨달아 순간적 희열을 느낀다.

▶ 서양 미술의 관습에서 '무한한 것에 대한 관조'는 '숭고'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무한하고 초월적인 것에서 미적 정서와는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참고** '숭고'란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마주하였음에도,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그에 대해 공포의 감정을 떠올리는 대신 경외의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눈앞을 가득 채울 만큼의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때의 오싹하고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감정이 바로 '숭고'이다.

2) 로스코는 감상자가 색면 앞에서 이를 경험할 때 감정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고 보았다.

▶ 감상자는 색들이 번지면서 확장되는 느낌을 마주함으로써, 그 색들의 경계가 무한히 사라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무한한 것에 대한 관조'에 의해 감상자는 색면 추상 회화로부터 '숭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3) 그는 색면 추상과 달리 작품에 과거의 경험적 사건을 그려 넣어 감상자가 이를 구경하게 하는 것은 회화를 통해 과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일 뿐, 감정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슬픈 장면을 표현한 회화'는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

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는 감상자 스스로 느끼는 슬픔이 아니다.

① **주목** 반면 '색면 추상 회화'는 '숭고'라는 감정을 감상자 스스로 느끼게 한다. 그러한 감정이 실제로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문단 5 색면 추상 회화의 의의**

1) 일찍이 **구상 회화**에서도 다양한 형상을 통해 숭고와 같은 정신세계를 구체화하여 표현하려 해 왔다.

▶ '숭고'의 감정을 표현하려던 시도가 '색면 추상 회화'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다.

▶ 다만 '구상 회화'의 경우는 구체적 형상을 통해 '숭고'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 다음의 그림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리히,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 다만 구상 회화 역시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다. 결국에는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문단-2].

2) 색면 추상은 거대한 산맥, 광활한 바닷가 등 장엄한 자연의 구체적 형상에 기대지 않고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데에 의의가 있다.

▶ 그렇겠다. 어디까지나 '색면 추상 회화'의 가치는 형상이 없음에,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는 거다.

# 헤모글로빈의 특성과 일산화 탄소 중독

### 지문 평가

글 자체로도 완성도가 높으며, <보기> 문제와 함께 보았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되는 지문이다.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왜 일산화 탄소가 폐에 과도하게 공급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테고, <보기> 문제에서 '왜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산화 탄소를 다시 마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을 거다.

###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 과학 - 생리학 - 헤모글로빈, 일산화 탄소 중독

일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중독,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소단위, 헴, 히스티딘 HC3 분자, 글로빈 단백질, 철 양이온,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 산소 친화도, 보어 효과, 탄산 탈수 효소, 수소 양이온, 옥시헤모글로빈,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 카르복시헤모글로빈, 배위 결합, 역배위 결합, 반감기

### 문단 1 일산화 탄소 중독

1) **일산화 탄소**는 체내에서 생성되어 **항염증**[-염증 발생 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 과다 흡입될 경우에 '일산화 탄소 중독'을 야기한다. **일산화 탄소 중독**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중증일 때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 일산화 탄소는 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부에서 과도하게 공급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2) 이는 폐에서 흡입된 산소 분자를 체내의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의 특성에 기인한다.

➡ '산소 분자'는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 흡입되는 것이겠다. 이를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이다.

🕒 **맥락 짚기** 산소 분자를 나르는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일산화 탄소 중독의 원인이 되는지 주목해야겠다.

### 문단 2 헤모글로빈의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

1) 혈액의 적혈구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 소단위 4개로 구성된다.

➡ 헤모글로빈 = 헤모글로빈 소단위 × 4로 생각하자.

2) **헤모글로빈 소단위**는 철 양이온과 히스티딘 HC3 분자를 포함하는 **헴**이라는 구조물이 **글로빈 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를 띤다.

➡ '철 양이온', '히스티딘 HC3 분자', '글로빈 단백질' 각각의 역할이 뭔지는 쳐두고 일단 정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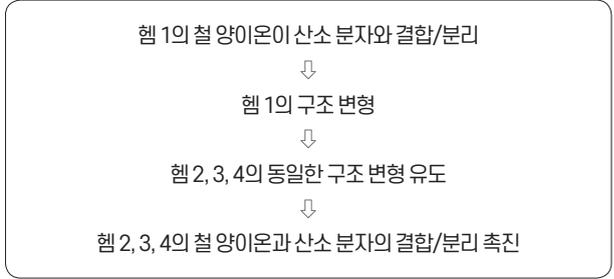
헤모글로빈  
 = 헤모글로빈 소단위 × 4  
 = (헴 + 글로빈 단백질) × 4  
 = ((철 양이온 + 히스티딘 HC3 분자) + 글로빈 단백질) × 4

3) 헤모글로빈 내부에서 **철 양이온**은 산소 분자 하나와 결합할 수 있어서 헤모글로빈 하나[→ 철 양이온 네 개]는 산소 분자 네 개와 결합할 수 있다.

➡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이 틀림없다.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를 체내 각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철 양이온'이 헴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다.

4) 하나의 헴에 포함된 철 양이온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거나 산소 분자로부터 분리되면 해당 헴의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변형은 해당 헤모글로빈의 다른 헴들에 동일한 구조 변형을 유도하여 철 양이온과 산소 분자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촉진된다.

➡ 이때의 '구조 변형'은 산소 분자와의 결합/분리가 촉진되는 형태로의 변형이겠다. 헤모글로빈이 헴 1, 헴 2, 헴 3, 헴 4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대략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를 상상하면 되겠다.



5) 이처럼 특정 부위와 특정 물질 간의 결합이나 분리가 다른 부위에서의 결합이나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 하며, 이 효과에 의해 산소 분자들이 폐에서 헤모글로빈에 신속하게 결합하고, 체내의 각 조직에서 신속하게 분리된다.

➡ 이런 효과를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한단다. 이 효과 덕분에 호흡을 통해 폐에 흡입된 산소 분자는 신속하게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산소 분자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은 이후 체내의 각 조직에서 산소 분자와 신속하게 분리되는 거다[→ 체내의 각 조직에 산소가 공급된다.]

### 문단 3 헤모글로빈의 '보어 효과'

1)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잘 결합하려는 경향성인 **산소 친화도**는 혈액의 pH값에 비례하는데, 이를 **보어 효과**라 한다. pH값은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소 양이온 농도에 반비례하도록 설정된 값이다.

➡ 개념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 정리하고 넘어가자.

수소 양이온 농도 ↓ ⇒ pH값 ↑ ⇒ 산소 친화도 ↑  
 수소 양이온 농도 ↑ ⇒ pH값 ↓ ⇒ 산소 친화도 ↓

2) 혈액에서 수소 양이온 농도는 보통 혈액 속 **이산화 탄소**가 **탄산 탈수 효소**의 작용에 의해 탄산 음이온과 **수소 양이온**으로 분해됨에 따라 높아진다.

➡ 1)의 정리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다.

이산화탄소 ↓ ⇒ 수소 양이온 농도 ↓ ⇒ pH값 ↑ ⇒ 산소 친화도 ↑  
 이산화탄소 ↑ ⇒ 수소 양이온 농도 ↑ ⇒ pH값 ↓ ⇒ 산소 친화도 ↓

3) 그런데 호흡을 통해 이산화 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폐 부근에서는 혈액에서의 수소 양이온 농도가 높지 않아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높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들과 잘 결합하여 **옥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한 뒤 혈액을 따라 체내의 각 조직으로 이동한다.

➡ 따라서 '보어 효과'로 인해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잘 결합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이때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로 인해 산소 분자와의 결합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4) 체내의 각 조직에서는 세포 호흡이나 물질 대사의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그중의 일부가 혈액에서 분해된다. 이렇게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

▶ '폐 부근'과 반대로 '체내의 각 조직'에서는 혈액의 pH값이 낮아짐에 따라 이때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낮아질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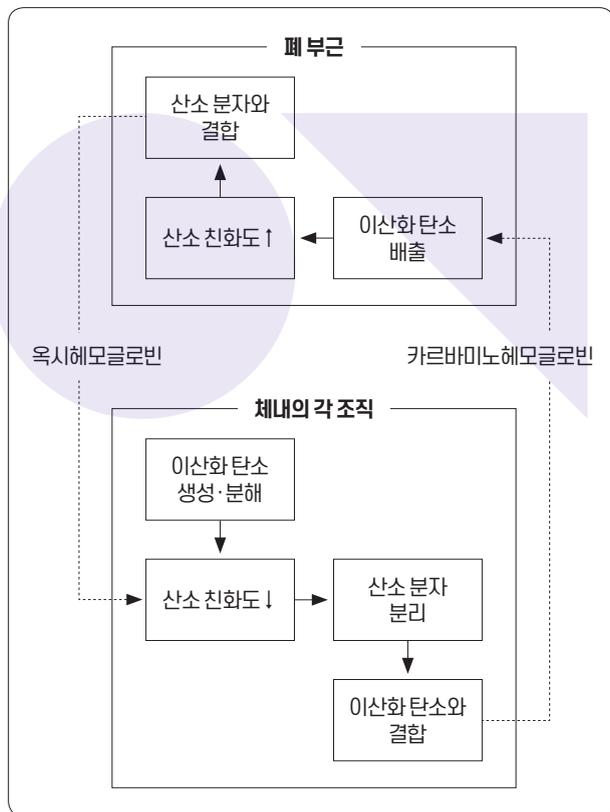
5) …… 수소 양이온은 히스티딘 HC3 분자와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을 산소 친화도가 낮은 구조로 변형시킨다.

▶ '철 양이온'의 역할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히스티딘 HC3 분자'의 역할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6) 그 결과 산소 분자가 분리되어 각 조직에 공급된다. 헤모글로빈은 대신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을 형성한 뒤 혈액을 따라 폐로 이동한다.

▶ 이렇듯 '체내의 각 조직'에서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낮아짐에 따라 옥시헤모글로빈에서 산소 분자가 분리된다.

▶ 분해되지 않은 다른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폐로 운반된다. 폐로 운반된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인체 밖으로 배출될 거다[문단3-3].



❗ **주목** '폐 부근'에서는 산소 친화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에 의해 산소 분자와의 결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반대로 '체내의 각 조직'에서는 산소 친화도가 낮아짐에 따라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에 의해 산소 분자와의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다.

#### 문단 4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

1) 그런데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 폐 부근]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에 동시 노출되면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한다.

▶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다. 폐 부근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옥시헤모글로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카르

복시헤모글로빈'이 되어 버리는 거다. 그러면 체내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진다.

2) 이는 산소 분자와 일산화탄소가 철 양이온과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산소 분자는 철 양이온에 전자를 제공한 뒤 그 전자를 철 양이온과 공유하는 배위 결합을 통해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반면, ……

▶ 이러한 '배위 결합'이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3) 일산화탄소는 철 양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고 이를 철 양이온과 공유하는 역배위 결합을 통해 헤모글로빈에 결합한다.

▶ 배위 결합은 '산소 분자가 제공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한다면, 역배위 결합은 '철 양이온이 제공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그런데……

4) 역배위 결합은 배위 결합에 비해 결합력이 20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산소 분자 대신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체내에 일산화탄소 중독을 야기한다.

▶ '역배위 결합'이 훨씬 더 강력한 결합이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앞에 일산화탄소와 산소 분자가 놓이면, 마치 더 강한 자석이 이끌리듯이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된다.

▶ 즉 '일산화탄소 중독'이란 헤모글로빈에 의해 산소 분자가 체내 각 조직에 전달되지 않아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문단1-1]이 유발되는 질환인 거다.

#### 문단 4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법

1) 일산화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압에 비해 기압이 두 배 이상 높은 챔버 내부에서 순수한 산소 분자를 호흡하게 하는 고압 산소 치료법이다.

▶ 순수한 산소 분자를 호흡에 의해 폐에 가득 공급되도록 하는 치료법이겠다. 이렇다고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 대신에 산소 분자와 결합하는 것도 아닐 텐데……

2) 혈중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대략 5시간 정도이다. 고압 산소 치료법은 그 반감기를 30분 정도로 대폭 감소시킬 뿐 아니라 ……

▶ 일단 이런 효과가 있다.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될수록 대신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3) ……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혈액에 산소 분자를 직접 녹여 체내의 각 조직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각 조직의 산소 결핍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

❗ **주목** 이 부분이 더 결정적이겠다. 헤모글로빈은 애초에 일산화탄소와 더 강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문단4-4].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산소 분자가 체내 각 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8~30] 현대시

## (가) 「황혼」 이육사

### 작품 평가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던 시인 이육사의 작품이다. 제목이기도 한 '황혼'의 함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를 이해해야 하겠다.

### 제 1연

내 골방(=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화자가 황혼에 대해 가지는 마음] 황혼을 맞이들이

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내려앉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존재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 '골방'은 세계와 단절되어 있거나 도피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황혼과 이어지고 나아가 세계와도 연결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화자는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 또한 화자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존재들의 처지를 떠올리고 있다.

### 제 2연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황혼은 평화와 안식을 주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 화자는 황혼을 소멸되어 갈수록 더욱 짙은 붉은빛으로 세상의 모든 외로운 것들을 포용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화자 자신도 그 황혼처럼 외로운 존재들을 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제2연에서 화자는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2연에서는 황혼 속에 있는 그 외로운 존재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보내고자 하고 있다.

### 제 3연

저 십이 성좌(= 별자리)의 반짝이는 별들[→ 밤하늘에서 외롭게 빛나는 존재들]에게도

중소리 저문 삼림[→ 고립되고 외로운 곳] 속 그윽한 수녀들[→ 외로운 존재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우 그 많은 수인(囚人, 옥에 갇힌 사람)들[→ 일제 강점기하 투옥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지 가지 없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 별들, 수녀들, 수인들은 모두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고립된 곳에서 외로이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 화자 역시 '골방'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황혼을 맞이하고 있기에, 같은 처지의 다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품는 거다.

### 제 4연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 '골방'에서 시작되었던 화자의 상상력이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화자는 황혼의 영역에 속하는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 애정과 연민을 보내고 있다.

▶ '지구의 반쪽'은 어두워져서 이제 밤을 맞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의 상황[→ 일제 강점기하]과 '행상대'나 '토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선진국이 아닌 지역, 즉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제3연과 제4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화자가 제2연에서 말하는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존재들로서, 화자가 입맞춤을 보내는 대상들이다.

### 제 5연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화자의 아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황혼이 내일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초식」 이제하

### 작품 평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다. 채식과 육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서술자가 4.19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겠다.

### 들어가기 전에

지문 이전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서술자의 아버지[→ 부친]는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국회 의원에 세 번 출마했으나 번번이 떨어진다. 부친은 출마를 결심할 때마다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는데, 이런 독특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3년 전 부친은 국회 의원 선거 운동을 하던 중 '나'를 데리고 도수장(= 도살장)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공급하는 도수장 주인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나, 열변을 토하는 부친 앞에서 도수장 주인은 철문을 닫아 버리고 말았다.

60년, 4.19(=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가 터졌을 때에도 부친의 가슴속에는 네 번째 출마에의 결의가 여전히 짙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부친 같은 유의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기쁨이나 재난 같은 것이 코앞에 들이닥쳐도 쉽게 동요해서 곧이곧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성격이 아니다. 거대한 민중의 의거가 거의 성공해 갈 무렵에, 데모대의 맨 앞장에 서서 경찰서장의 따귀를 갈기러 달려간 사람이 나의 부친이라고 하는 세간(= 세상 일반)의 풍문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람들 사이에는 부친이 데모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모양이다].

▶ 4.19가 일어났으나 부친은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다. 부친은 국회 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하지만, '엄청난 기쁨이나 재난'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4.19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 경찰서장의 따귀를 때린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숙당 조문제 선생이다. 조 선생은 자기 집 앞길에서 데모대에 빨려 들어서 경찰서까지 밀려가 서장의 따귀를 후려갈기기는 했으나, 그길로 낚시질을 갔던 것이다. 한문을 가르치던 그로서는 단 한 번의 따귀로 그 모든 진상을 파악하고, 맥이 빠져 흥미를 잃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쁨은 의연히 민중의 것임도 틀림없었다. 4천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의 온전한 축제[→ 서술자가 4.19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것을 두고 도대체 어느 놈이 그 당위를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민중들이 단결하여 민주주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 낸 역사적 사건의 '당위'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 서술자가 4.19와 민중의 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부친은 의심쩍은 듯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흘이 지났을 때 드디어 부친은 그 거창한 기쁨의 덩어리[→ 4.19라는 거대한 움직임의 본질]

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듯했다. 하루가 더 지난 어느 날 저녁답에, 부친은 이윽고 나를 불러서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 쉽사리 집단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는 성격인 부친은 방에 틀어박혀 나름의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고민의 답을 얻은 듯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간 거다.

들뜬 군중들이 악머구리(= 개구리) 꿩뚫 하는 시가지의 잡답(= 사람들이 많이 몰려 북적북적하고 복잡한 상태)을 뚫고 흐린 지붕들 틈으로 눈을 쏘며 오르내리던 해안선도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어서, 발끝에 붉은 먼지가 일고 아직도 영영 꺼죽하니 말라붙은 잡초 더미들이 드문드문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야 나는, 우리들이 걷고 있는 방향이 3년 전의 그 도수장으로 통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나는 부친을 만류하고 싶었다. 설사 도살장 주인이 아무리 부친과 똑같은 양과 비중의 기쁨[→ 4.19 이후 새롭게 바뀐 세상에 대한 기쁨]에 젖어 있다고 한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은 몹시 어색한 상봉일 듯싶었던 것이다. 아주 드러누워 말라붙어서 변색된 을씨년스런 들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백발을 휘날리며 부친은 곧장 건물 앞으로 걸어가 문을 두들겼다. 부친으로서 이미 각오가 돼 있었을 것이다.

▶ 4.19를 맞아 민중의 거대한 힘을 목격한 부친은 다시 도수장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히려려고 하고 있다.

철문이 열리고 주인이 나오자 부친은 무어라고 인사를 했고, 곧 품에서 큼직한 광목 한 폭을 꺼내 그것을 땅에 펴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오만상을 찡그리며 두 번 세 번 실패한 끝에 부친은 드디어 손가락 하나를 물어 끊고, 그것을 땅에 갖다 댔다. 부친은 떨면서 광목 위에 천천히 풀 초(草) 자를 쓰기 시작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하여 민중들을 '민초'라고도 부른다. 4.19는 민초, 즉 풀들의 힘을 보여 준 의거라는 의미가 되겠다].

▶ 부친이 자신의 신념을 도수장 주인 앞에서 행동으로 표현한 사건이다. 부친은 4.19를 경험하며 육식이 아닌 채식[→ 작품의 제목대로라면 '초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채식'은 부친에게는 폭력적인 육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부친의 방문 뒤로 '나'는 도수장에서 소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부친은 이를 도수장 주인이 자신의 업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61년 5월, 군사 쿠데타[→ 부친이 주장하는 채식의 이념과는 정반대되는 힘이 지배 권력이 된 사건]이 일어난 그 사나흘 뒤 한낮에, 갑자기 요란스럽게 두들겨지기 시작한 대문 소리에 질겁해서 식구들이 부지중(= 알지 못하는 동안) 대항의 태세를 갖춘 것은 전혀 우리들 탓이 아니다. 병역 의무에 뛰어들고 싶으면서도 군사 혁명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망설이고 있었으며, 나로서는 누구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하찮게만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하찮게' 여겨졌다는 거다].

▶ 참고 4.19가 일어난 다음해 5.16이 일어났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뒤집고 세상을 바꾼 사건인 4.19와는 달리 5.16은 군인들이 무력에 의해 정권을 차지한 사건이다.

▶ 5.16으로 세상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후 식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그러던 중 대문을 누군가 요란하게 두드렸으니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탄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구들은 긴장하며 '부지중 대항의 태세'를 갖추었을 터이다.

고리를 따자 대문 밖에 한 무리의 군중과 도수장 주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는 놀랐다. 그 사람은 긴장으로 번쩍이는 이마를 들고, 길을 열어 소 한 마리를 부친에게 보였다. 부친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치우고, 그 낮익은 사내[→ 도수장 주인]의 두 손을 잡았다.

▶ 도수장 주인이 난데없이 소를 몰고 부친을 찾아온 것이다.

극적인 상봉에는, 그러나 언제나 일말의 불안이 스며 있다. 부친은 의심쩍은 듯이 도수장 주인의 아래위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마치 언젠가 결의 직후에 전장(戰場)에 떠나보냈다가 오랜 고초 끝에 돌아온 동생이, 그때 그 동생이 틀림없는가 하고 음미하듯이.

▶ 일단 찾아왔으니 맞이하기는 했으나, 도수장 주인의 의중을 알 수 없어 긴장하고 있는 부친의 모습이겠다.

“혁명이요, 서 선생! 혁명입니다! 서광삼 선생…….”

우리들이 다시 굳은 것은, 처음으로 들어 보는 그의 거침없는 목소리의 경이 때문이지 그 들뜬 혁명 예찬[→ 도수장 주인은 5.16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부친은 곧 얼굴을 풀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본인과 신념이 다를 수도 있었으나 일단 상대의 입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군중들은 태반이 동네 사람들이었고 더러 낯선 얼굴들도 보였으나, 하긴 큰 황소 한 마리를 기꺼이 내놓고 도수장 주인이 잔치를 베풀겠다는데 일일이 그런 것을 가릴 계제(=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는 못 되었다.

▶ 도수장 주인은 5.16을 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5.16에 감격한 도수장 주인이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사람들과 나눠 먹고자 하였고, 이에 잔치가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다. 풀 초 자를 헐서로 쓴 부친과 황소를 잡아서 5.16을 기념하는 도수장 주인은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축연(祝宴,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베푸는 잔치)은 한길 건너편, 옛 공민학교 자리였던 운동장에서 베풀어졌다. 어디서 나왔는지 가마술이 걸리고, 냄비가 동원되고, 술이 날라지고, 포를 뜯 갈과 피를 받을 바깥쓰가 정돈되고, 그리고 물이 끓여졌다.[→ 모인 사람들이 소를 잡아 나눠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갑작스런 소동의 기괴함은,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그 속에 있었다. 꼬집어 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진저리 나는 그 무언가가……. (중략) 준비가 끝나 이윽고 도수장 주인은 뜰 한복판에, 군중으로 둘러쳐진 담 한복판에 섰다. 사람들이 소를 밀고 들어와 몇 겹이고 그 뿔을 형겹으로 동여맸고, 서너 명의 장정이 벌거벗은 허리로 짐승의 사지를 끼고 버팀목 역할을 자원했다. 큰 도끼가 날라져서 주인의 손에 힘 있게 쥐어졌다 [→ 도수장 주인이 소를 도축할 태세를 갖춘 거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서술자는 기괴함을 느꼈고, 그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저리 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거다.

어둠 속에서 홀로 짐승을 죽이는 일과 명명(= 아주 환하게 밝음) 백일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뚜렷하게)에 천(千)의 시선 속에서 그것을 찌르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나는 모른다. 저것은 구식이다, 어딘가 틀려먹었다……고 부지중 속으로 있는 힘을 다해 외치면서도, 우리는 그 숨씨[→ 도수장 주인이 소를 잡는 숨씨]의 정확함에 감탄했다.

…… 도끼는 짐승의 정수리 한복판으로 녹아들어 갔다. 한 번…… 다시 한 번…… 홀륭한 도살자는 결코 두 번을 내리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은, 우리들 내장 속의 천성적인 도살자가 그렇게 절규하고 명령하는 바다[→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폭력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다.]. 쉽게 쓰러지지 않는 짐승을 향하여 관중의 전심(= 온 마음) 전령이 질타하고 발을 굴렀다. 표를 뺏기지 마라, 왜 땀을 흘리느냐, 방해하는 놈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자신이 차지한 권력이나 힘을 빼앗기지 말고 방해하는 자는 죽이라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다.] …… 그리고 드디어 짐승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한 무더기 피와 함께 무너졌던 그[→ 도수장 주인]가 뒤틀린, 입을 딱 벌린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어느 허공을 향해 섰을 때, 우리는 당연한 듯이 쓰디쓴 환멸을 느꼈다…….

▶ 소를 잡는 행위를 목격하고 사람들의 본능적인 공격성이 일깨워진 모습이다. 4.19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던 군중의 심리가, 5.16을 거치고 소를 잡는 살육 장면을 목격하며 폭력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 이런 폭력적인 사고방식은 부친이 주장하던 채식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육식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이감